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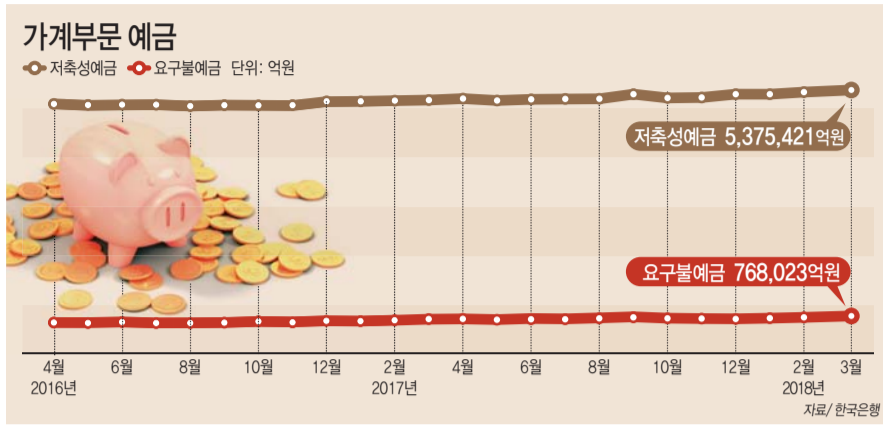
저금리의 역설... 소비·투자 안늘고 돈도 안돈다

실질금리 -0.6%... 저축안고 '주차하듯' 은행에 돈 파킹

韓銀, 은행 가계예치 4.6% 늘어
저축성예금 증가세 제자리걸음
에·적금 단기화현상 지속될 듯

#. 4년 차 직장인 김철약(34·가명) 씨는 3년간 허리띠를 졸라 매며 5000만원이란 목돈을 손에 쥐었다. 주식이나 파생상품 투자는 복잡한 데다 자칫 원금을 까먹을 수 있어 선뜻 내키지 않았다. 저축성 예금에 넣자니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손해보는 장사 같았다. 부동산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입)도 생각했다. 하지만 정부가 보유세 도입 등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에 생각을 접었다. 결국 그는 프라이빗뱅크(PB)의 권유로 '수시 입출금 예금'에 잠시 돈을 넣어 두기로 마음먹었다.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0.6%)로 떨어지면서 김씨 처럼 다른 투자 기회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은행 파킹(단기 예금 등에 예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저금리 속에 만기에 따른 금리 격차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자 서민들이 돈을 은행에 오랫동안 묵혀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



날 것이란 기대와 반대로 시중에 돈이 안돈다는 얘기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가계가 예금은행에 돈을 맡긴 총예금액(말잔 기준)은 614조3445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27조1094억원(4.62%)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과거 서민들의 목돈 마련 수단으로 각광 받던 저축성예금은 낮은 금리로 점점 매력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1년간 늘어난 가계 총 예금의 75.73%에 달하는 20조 5306억원이 저축성예금(잔액 537조5421억원)이었다. 저축성예금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600조 원(600조1115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증가세를 보면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이후 올해 3까지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1.07% ↑), 3월(1.17% ↑)을 제외하면 1%대 증가율을 보인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 증가율은 지난 2008년 10월 8.0%로 높아지고서 서서히 상승해 2009년 8월과 2010년 7월에 각각 17.3%에 달하는 등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고서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두자릿수 증가율을 대체로 유지했다.

그러나 한은이 2012년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저축성예금 증가율은 바닥에 머물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가 시작되면서 은행에 돈을 넣어놨자 사실상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제금융센터와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이자율(최근 기준금리-예상 인플레이션)은 -0.6%이다.

체코(-0.8%), 헝가리(-1.8%), 필리핀(-0.4%), 폴란드(-1.2%)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은행권 한 PB는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안전자산 선호, 예·적금의 단기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에 일단 넣어두고 보자는 '파킹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3월 말 기준 가계 부문 시중통화량(광의통화·M2)은 1380조3841억원(원계열, 평잔기준)이 됐다. 지난해 말 1350조600억원 보다 30조3240억원 늘어난 것이다. M2는 언제나 원하는대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국내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191조 242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1월 186조1866억원, 2월 190조9208억원) 증가세다.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낮춘 것인데 이렇게 돈 쓰기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

까. 개인의 경우 고용시장에서 '재기'가 힘들어 돈 쓰기가 겁난다. 구조조정의 연쇄 사슬이 작음했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들이 힘들어지면서 고용시장이 불안해지고, 개인은 언제든지 파산의 길로 내몰릴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 중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이란 근로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최근 4주간 구직 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로 반영해 계산한 실업률이다.

돈 있는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다.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손실 가능성이 적은 은행에 돈을 맡기더라도 다른 투자 기회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돈을 빼서 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일자리를 늘리고, 실적에 따른 재교육, 재사회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해 돈이 돌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이랜드리테일 상장 내년으로 또 연기

뉴코아아울렛 유가증권시장 상장
"올해는 리츠 상장부터 추진할 것"



E·LAND

이랜드그룹의 핵심 계열사 이랜드리테일의 상장이 올해 상반기에서 내년으로 연기됐다. 대신 뉴코아아울렛 일산점, 평촌점, 아담점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공모리츠(REITs)를 이달 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올해 연말에 예비심사 청구를 신청하고 내년엔 상장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초기에 재무개선에 집중했고, 지난해부터 자본 확충에 나섰다"며 "올해 리츠 상장부터 추진하고 내년엔 이랜드리테일을 상장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장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실적으로 올해 상장보다는 프리 IPO 투자자와 약속한 2019년에 상장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했다고 이랜드그룹 측은 설명했다.

앞서 이랜드리테일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주관사를 선정하고, 상장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초 이랜드그룹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랜드리테일 자회사인 이랜드파크 등을 분리하는 기업구조를 개편한 뒤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랜드리테일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16년 '티니위니'를 중국브리그라스에 8770억원에 매각하고 지난해에는 '모던하우스'를 사모투자펀드인 MBK파트너스에 7000억원에 팔았다. 이에 이랜드리테일의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04%로 낮아졌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 2조638억원에 영업이익 2340억원을 기록했다. 이랜드리테일의 부채비율도 1분기 기준 168%(지난해 198%)로 줄었다.

이랜드그룹은 이랜드리테일 상장을 늦추는 대신 뉴코아아울렛 3개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한 리츠를 이달 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리츠코크레딧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매장 장기 임차와 리츠 지분 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직접 참여한다.

한편 이랜드그룹은 작년에 약속한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 계획 중 이행하지 못한 5000억원을 올해 조달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에서 조달할 3000억원가량도 다음 달 상황을 앞두고 있다.

이랜드그룹(30개사)은 자산규모가 8조 3000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선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2위에 올랐다. 그룹 내에서 상장사는 이월드뿐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원

"금융권 채용관행 근본적 개선 필요"

김감원장, 금융협회장 간담회
"고학력자·남성 우대, 떨쳐버려야
영업관행 지속되면 신뢰회복 어려워"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금융권의 채용관행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김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대외행보로 6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관행이 다수 드러났고,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권에 새로운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과거에는 채용 과정에서 고학력자와 남성을 우대하거나 임직원 추천제도를 운영하는 행위 등이 개별 회사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두 떨쳐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다. 윤 원장은 금융투자나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에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확산시켜 채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윤리 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고객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부담시키는 영업관행이 지속되는 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윤리와 고객중심의 경영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며 "불안전판매 여부 평가 반영을 포함해 소비자들과 판매자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평가 보상체계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협회들은 지난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마련했으며, 이달부터 금융회사별 내부규범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1분기 '투자등급' 개별기업 93%

1분기에 '투자등급'을 받은 개별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투자등급' 비중은 93.4%에 달한다. 지난해 말 92.9%보다 증가한 것이다.

반면 투기등급은 2017년 말 7.1%에서 2018년 3월 말 기준 6.6%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AA급과 BBB급이 각각 0.6%포인트 및 0.3%포인트 상승했다. BB급과 B급 이하 비중은 각각 0.2%포

인트 및 0.3%포인트 하락했다.

신용등급이 바뀐 기업은 1개에 불과했다. 전체 유효등급 보유업체 365개사가운데 0.3%에 해당한다. 등급도 상향했다. 등급변동은 2016년 1분기 12개업체, 2017년 1분기 4개 업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상향 건수 대비 하향 건수의 비율인 상하향배율(Up/Down Ratio)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1.0배 미만을 유

지했다. 지난해 말 보다 0.5%p 증가
투기등급 7.1%→6.6% 하락세

지했다. 등급이 하락한 업체 수가 상승한 업체 수보다 적다는 의미인 1.0배 미만인 머물러 등급하향 기초가 지속된 것이다.

상·하향 건수를 총 유효등급수로 나눈 상하향비율 및 하향비율 추이를 투자와 투기등급으로 구분해 2017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투자등급의 상하향비율은 0.0%에서 0.3%로 상승하고 하향비율은 0.9%에서 0.0%로 하락했다.

/김문호 기자